

보험사기 최대 무기징역...사기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해야

광주일보 공익캠페인 보험사기 악순환 뿌리 뽑자

〈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반복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좀
촘한 법적, 제도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법 개정, 양형기준 강화 등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업계 종
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르고도 행정제재를 받기 전
까지 보험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등 구멍이 남아있
기 때문이다.

22일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대
한 처벌 제도는 최근들어 크게 강화됐다.

지난해 8월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직접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외에도 알선·권유·광
고하는 행위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이를 위반하
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정된 법에는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의 알선·유
인·광고 등 심의·시정요구 요청권, 금융당국의 관
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
증된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 입원적
정성 심사 기준 마련 등도 포함됐다.

지난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험사기에 대한
권고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상향하는 등 양형
기준을 강화했다.

또 양형위는 사기범죄 형량을 강화하면서 그동안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험사기를

보험업 종사자 범죄 저질러도
행정 제재까지 1년 이상 소요
영업시간 벌고 추가 피해 우려
시민 포상금제 적극 활용하고
보험업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추가했다.

양형을 가중시키는 요인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
량한 경우(특별가중인자)'에 의료·보험 전문직 종
사자의 보험사기가 추가되기도 했다. 종사자들이 직
무 수행중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 가중돼 처벌
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계·보험업계 등 종사자가 보
험사기에 개입됐을 경우 상습범 여부, 금액, 죄질 등
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보험사기에
대비해 더욱 촘촘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
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직접 보험사기를 저지르
라도 곧장 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재범 우려
가 남아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내에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
쳐야 해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
에도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행정절차 진행에 1년 이상이 소요되면서 보
험업 종사자들이 보험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게 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까지 낳고 있다는



화정아이파크 안전점검

광주시 서구청은 22일 국토안전관리원, HDC현대산업개발, 안전관리자문단 등과 함께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1·2블록 일대에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것이다.

이에 보험사기 형사처벌과 관련해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아직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또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업 관련
종사자 명단 공표,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입원적정성 심사 비용 지원 등 제도를 추
가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들이 스스로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신고 및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험
사기는 시민 제보 또는 보험회사의 조사를 거쳐 수
사에 착수하는 만큼, 시민 제보가 활발할수록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기준'이 개정되면서 보험사기 알선·권유 등 행위를
신고해도 포상금(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8월부터 보험사기 알선·권
유·광고 행위 금지 관련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포상 근거가 생긴 것이다.

안성준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장은 "보험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비윤리적 행위를 넘어 막대
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사회적 범죄로, 해마다
수조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부당하게 유출돼 결국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보험
범죄로 인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단속하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
다"고 말했다.〈끝〉

/유연재 기자 yjyou@

광주·전남 '무더운 6월'

한 달 내내 평년 기온 웃돌 듯

오는 6월부터 광주·전남 지역에 평년 기온을 웃
도는 무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2일 광주·전남 지역의 6월
날씨에 대한 1개월 전망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6월 2일부터 29일까지 4주 동안 평균
기온이 평년을 웃돌 확률 40%로 대체로 무더운 날
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6월 첫 주(2~8일)의 평균 기온은 평년(20.0~
20.8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로 예
보됐다.

6월 둘째 주(9~15일·평년기온 20.9~21.7도)와
셋째 주(16~22일·평년기온 21.7~22.3도), 넷째 주

(23~29일·평년기온 21.9~22.9도) 모두 평년보다
기온이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였다.

이번 주말에는 토요일인 24일까지 대체로 흐리
다 일요일부터 화창해지며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
인다.

기온은 평년(최저 11~16도, 최고 23~27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져 비교적 더위가 덜할 것으
로 예상된다.

23일 아침최저기온은 14~17도, 낮최고기온은
20~24도로 예보됐으며, 24일은 아침최저기온 14~
15도, 낮최고기온 19~22도에 머무를 전망이다.

기상청은 일요일인 25일 아침최저기온은 10~14
도, 낮최고기온은 20~26도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
로 내다봤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여행할 전남 섬, 뱃멀미 지수 알려 드려요

도·기상청, 날씨 정보·승선체감지수 등 서비스 제공

섬 여행객들이 맞춤형 섬 기상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됐다. 바다와 인접해 기상 변화가 잦은
데도, 구체적인 섬 기상 정보를 알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섬 여행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날
부터 전남 섬을 찾는 여행객 안전을 위해 '전남
섬 여행 날씨'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섬 여행 날씨' 서비스는 전남지역 주요 섬의
날씨 정보와 해양관광 기상안전지수, 추천 섬 여
행지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광주기상청과 개발해
시범 운영해온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사업에 섬
검색·SNS 공유 기능 도입 등 제법단 의견을 정
식 서비스에 반영했다.

날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은 전남도
가 선정한 24개 '가고 싶은 섬'과 5개 관광 섬(여
수 거문도, 영광 송이도, 완도 청산도, 신안 가거
도·흑산·홍도),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방문

객이 둘러보기 좋을 5개 섬(여수 개도·금오도·대
경도·백야도·화태도) 등 34개다.

24개 가고싶은 섬은 ▲복도 외달도 ▲여수 남
도·순죽도·연도·대항간도·송도 ▲고흥 연흥도 ▲
보성 장도 ▲강진 가우도 ▲무안 탄도 ▲영광 안
마도 ▲완도 소안도·생일도·여서도·금당도 ▲진
도 관매도·대마도·금호도 ▲신안군 반월박지도·
기점소악도·우이도·선도·옥도·고이도 등이다.

섬 여행객들은 또 날씨 서비스의 기상안전지수
를 통해 ▲돌레길 등 섬여행지수 ▲뱃멀미 가능성
을 등급화한 승선체감지수 ▲바다수영·갯바위낚
시·갯벌체험·세일링 지수 등도 살펴볼 수 있다.

여행 시기와 평소 좋아하는 여행 테마를 선택
하면 날씨와 이용자의 관심사를 고려해 적합한
섬 4곳을 추천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
다. 서비스는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전남 가고 싶
은 섬 누리집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교육청 '국힘 특보 임명 문자' 선관위에 위법성 의뢰

국민의힘 대선후보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내용
의 문자메시지가 광주지역 현직교사 일부에게 전달
된 데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은 22일 관내 일부 현직 교사들에
게 발송된 국민의힘 대선후보 교육특보 임명 문자
메시지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광주시선거
관리위원회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현직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
돼 문자메시지 발송에 이용된 것에 대해 일선 학교
현장의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을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에도 비슷한 유
형의 문자메시지가 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뿌려진 것 같다"며 "선거할 때마다 매우
일상적인 일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교사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어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현직 교사들에게
국민의힘 대선후보 교육특보로 임명했다는 문자메
시지가 대량 발송돼 교원단체가 반발하는 등 물의
가 빚어졌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지역의 미래 호남의 리더, 함께 성장합니다.

호남 언론 최초로 개설한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각계 석학과 유명강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수준 높은 강연의 장으로 기업 최고 경영진 및 임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자치단체의원,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 관리자, 법조·의료, 교육·문화·예술계 등

호남을 이끄는 전문가들이 원우로 참여하는 고품격 프로그램입니다.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13기 원우회 일동